

木造建物屋蓋發生考

— 特別 팔각지붕에 대하여 —

金正基

I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日本 등을 포함한 東北亞細亞地方의 建物은 그 主要架構材로 木材를 使用하고 있는 所謂 木造建物이 그 主流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木造建物도 그 發生期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안에서 그 地域에 따라서 差異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것은 氣候나 地形에 따라 또 文明의 發生過程의 差異에 따라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東北亞細亞地方이 같은 文化圈에 속하고 특히 建築이 같은 系統으로 統一되기는 中國을 始源地로 하여 그들의 文化가 우리나라로 또 日本으로 直接 또는 間接의 傳해지기 시작한 뒤부터의 일이다. 그 후 우리나라나 日本의 建築은 얼마동안은 傳해진 樣式과 手法을 그대로 固守하면서 木造建物이 營造되어 나갔을 것으로 생각되나 점차 새로운 中國의 建築文化를 繼續 導入하면서 各己의 趣向이나 自然條件에 影響받으면서 個性을 보이는 建築으로 發達되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地域의 建物이 비록 細部の 手法이나 樣式에 差異가 나타나고 個性을 나타냈다고 해도 그 基本的인 形態나 技法에는 變化가 없었던 部分이 적지 않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지붕形態였다.

지붕은 木造建物뿐 아니라 어떠한 建物에 있어서도 機能의 意匠으로나 가장 重要な 役割을 맡은 部分임은 틀림없고 厓(建物)이란 말

自體가 지붕에서 緣由되어 즉 집은 지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지붕도 建築技法의 變化 또는 發達에 따라 細部的인 變化는 있었으나 그 全體的인 形態에는 變化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즉 그 지붕 形態는 모임지붕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및 팔각지붕이다. 이 가운데 모임지붕은 그 建物의 平面形態에 따라 네모지붕, 육모지붕 또는 팔모지붕으로 變化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固有의 木造建築의 지붕도 그것이 어떤 種類의 建物이든 이 몇몇 지붕 形態 가운데 하나를 採擇하거나 또는 그것을 混用하고 있는 것이며 中國이나 日本의 建物도 역시 그러하다.

여기서는 이들 지붕 形態가 어떻게 發生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固定되어 普及되었는가를 살펴 보고 특히 팔각지붕의 發生과 普及에 留意해서 考察해 보겠다.

II

建物の 發生은 집 즉 사람이 自然의 威脅에서 自身과 自身の 家族을 保護하고 休息을 取하기 위한 한 空間으로서 創案된 施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人類의 歷史 속에서 相當히 빠른 時期부터 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實은 그 集의 歷史는 意外로 짧다. 즉 몇 萬年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舊石器時代에는 아직 뚜렷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架構物이 發生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舊石器人들은 自然環境 즉 自然洞窟이나 큰 바위틈 또는 큰 바위 그늘(岩陰)을 利用하거나 돌을 쌓아 人工의 巴위 그늘을 만들어 風雨를 막고 猛獸들에서 몸을 保護하거나 休息處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新石器時代에 들어와서 農耕이 시작되고 질그릇을 만들기 시작되면서 完全히 人工的으로 架構된 住居가 發生했다. 그 집은 땅을 넓적하게 파 내려가서 그 바닥에 몇몇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은 그런 집이었다. 이것을 집 밖에서 보면 땅위에 지붕만 있는 그런 形態의 집이었다. 이 時期의 집이란 아직 治木 治材를 위한 金屬器具가 없는 時期며 모든 架構



圖 1. 팔각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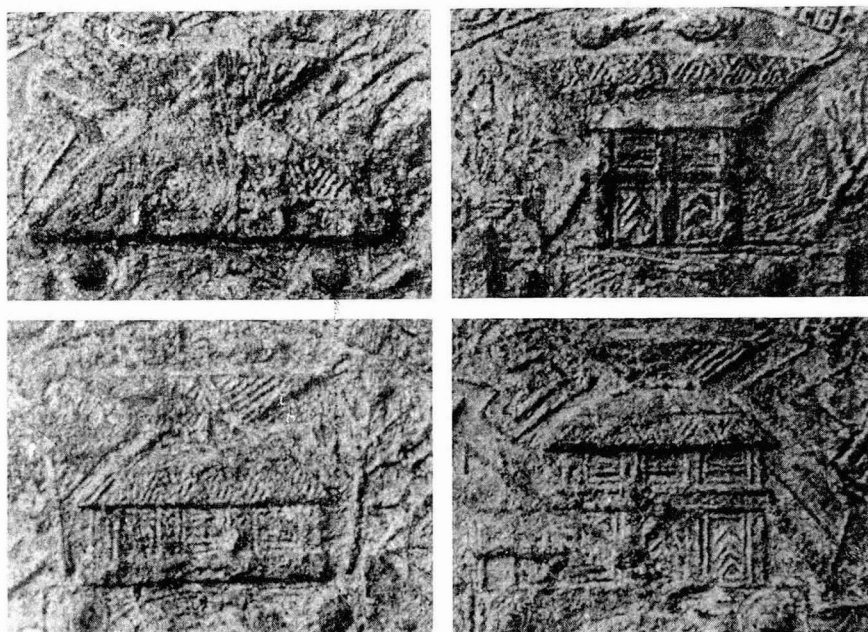


圖 2. 家屋文鏡細部

가 님을이나 가족과 같은 것으로 얽어매어서 이루어졌고 지붕도 긴 풀이나 곡물의 짚으로 이었던 것이다.

靑銅器時代만 해도 建物의 架構手法이나 平面構成에 若干의 發展을 보였고 一部에서는 地上建物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이 堅穴住居였으며 지붕 아래 끝이 땅에서 떨어져 세워지기도 한 것 같은 遺蹟도 發見되나 아직 原始的인 建築을 벗어나지 못했다.

建築手法이 이음새나 축 등으로 짜아올리는 組立架構로 發展되는 것은 鐵器時代부터의 일이며 그것도 鐵器가 많이 普及된 시기부터였으리라 고 생각된다. 鐵釘도 發明되고 많은 種類의 木材加工用具가 發明되면서 부터 木造建物의 各部材를 이음새나 축 또는 홈구멍 등으로 짜올릴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와 아울러 지붕을 잇는 材料도 土陶器製作技術의 發展과 應用的 多樣化로 기와가 發明되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많은 經費와 勞力을 必要로 하는 기와가 지붕을 잇는 材料로 一般화된 것은 堯堯 後的 일이고 初期에는 一部 權力階級の 住宅이나 宮殿 官衙 또는 宗教的 建物 등에 使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木造建物의 지붕 形態는 鐵器의 普及으로 이루어진 發達된 架構手法이 行하여지게 되었어도 새로운 形態로 變化하지는 않았다. 어디까지나 原始時代에서 시작되었던 建物의 지붕 形態를 그대로 繼承하였고 다만 그 形成手法만이 새로운 手法으로 代替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볼 수 있는 木造建物의 여러가지 지붕 形態는 그 始源이 原始時代의 建物에 있는 것이고 다만 時代의 흐름과 技術의 發達로 조금씩 細部的인 變化가 있어 發達되어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III

여기서는 各種 지붕 形態의 發生에 대하여 우리나라 先史時代 堅穴住居址에 나타난 기둥 配置 狀況에서 復元的 考察을 通해 살펴보고 中國과 日本의 遺物에 대해서도 檢討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堅穴住居址로서는 黃海道 鳳山郡에서 發見

된 智塔里遺跡의 몇몇 住居址 가운데의 第一號住居址로 알려져 있다. 이 住居址는 거의 正方形 平面으로 된 堅穴 바닥에 直接 기둥을 세워서 만든 집으로서 그 기둥 配置나 서까래의 樣相을 잘 알 수 없었으나 기둥을 堅穴 바닥 周邊을 돌아가면서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었다^㉑고 한 것으로 보아 기둥을 堅穴 안쪽 周邊에 돌아가면서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기둥머리에서 다른 木材로 가로 連結 結縛하여 거기에서 서까래를 걸쳐서 지붕을 이은 네모지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이 時代 즉 新石器時代에 속하는 住居址는 대부분이 平面이 圓形 또는 圓形에 가까운 方形 堅穴로 지붕 모양은 圓錐形이 아니면 네모지붕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그 뒤의 靑銅器時代나 初期鐵器時代의 住居址에서는 좀더 具體的으로 지붕 形態를 알 수 있는 資料가 있고 그 形態도 좀더 多樣하다. 平安北道 寧邊郡에서 發見된 細竹里遺跡의 第二七號住居址의 경우는 불에 탄 기둥과 서까래들이 남아있는 一邊 三·七m의 正方形 堅穴住居址로서 分明히 네모지붕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㉒ 따라서 原始住居에서 는 네모지붕 또는 圓錐形 지붕이 가장 初期에 發生하였고 또 相當히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咸鏡北道 茂山郡의 虎谷洞遺跡의 第八號住居址는 南北 一一·五m, 東西 六·二m, 깊이 一m 程度の 長方形 堅穴이었는데 여기에는 堅穴의 東, 西壁面 가까이에 各各 七個의 原始的 礎石이 서로 對稱으로 配置되어 있었고 中央에는 기둥이 불에 탄 곳이 礎石과 平行하여 있었다고 하고 調查報告에서는 이 礎石과 기둥의 配置에 따라 지붕 形態는 맛배지붕으로 보고 있다. ^㉓

또 京畿道 坡州郡 交河里第一號住居址의 경우는 長邊 七·五m, 短邊 三·二m로 깊이는 三五cm에서 七〇cm 程度 되는 역시 長方形의 堅穴住居址였는데 堅穴 바닥에는 壁을 따라 平面 長方形의 기둥구멍이 있었고 또 堅穴 中央에 長邊에 平行하여 등근 기둥구멍 四個가 있었다. 그러나 이 中央 기둥구멍의 兩端의 것은 그 部分的 短壁에 붙어서 패인 것이 아니고 各各 一·七m와 二·〇m의 距離를 두고 안쪽에 있었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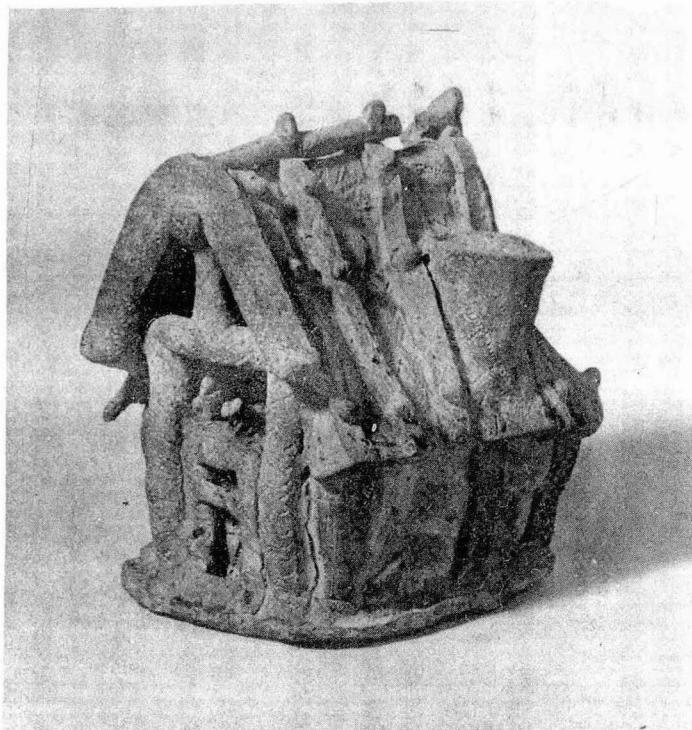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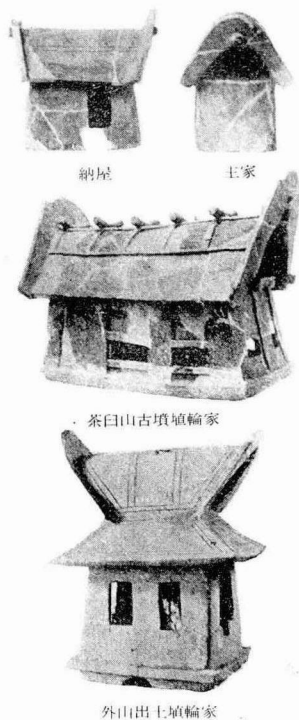


圖 4, 家形土器



納屋

土家

茶臼山古墳埴輪家

外山出土埴輪家

圖 3, 家形埴輪

기둥 配置로 보아 이 住居의 지붕은 分明히 우진 각 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④

그밖에도 이 時代에 속하는 竪穴住居址가 一〇〇餘個나 되며 그 가운데 기둥 配置를 推定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기둥 配置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네모지붕, 맞배지붕 및 우진각지붕의 세가지 지붕形態로 밖에 復元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맞배지붕이 가장 많고 결코 팔각지붕으로 判斷되는 住居址는 發見되지 않았다. 하기와 우진각지붕으로 判斷되는 기둥 配置를 갖는 住居址의 경우 이것을 억지로 解釋한다면 팔각지붕으로 構成할 수도 있다. 그 反面 아직 팔각지붕으로 밖에 復元되지 않은 遺構도 確認된 바 없어 어려운 問題이기는 하나 原始時代의 技法이란 극히 單順한 原理에 立脚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原始時代 住居에는 팔각지붕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順理인 듯하다.

이에 관해 이웃 日本의 경우를 살펴보자.

日本의 경우에도 竪穴住居址에서는 팔각지붕으로 判斷되는 것은 없었다. 다만 竪穴住居址를 復元하여 上部 架構를 만든 것에는 原始的인 팔각지붕으로 處理된 것이 있다. (圖一) 그러나 青銅器時代의 後期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土器壺(鳥取縣舍人村出土)인 家形壺의 지붕이 팔각지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西紀三~四世紀頃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青銅鏡의 背面에 原始時代의 建物 네棟을 鑄출시킨 것이 있는데 (圖二) 여기에는 네棟의 建物 가운데 세棟의 建物 지붕이 팔각지붕으로 보인다. 즉 하나는 竪穴住居로 보이는 지붕 용마루가 合閣아랫部分 보다 훨씬 길게 나온 形態의 팔각지붕을 가진 建物이고 또 한체는 地上住居로 보이는 역시 같은 모양의 팔각지붕으로 된 建物이며 또 하나는 높은 마루 위에 집을 세운 高床建物이며 高貴한 사람의 住宅으로 보이는 것으로 역시 같은 모양의 팔각지붕이었다. 네棟의 建物 가운데 한棟은 역시 高床建物로서 神殿인지 倉庫인지 알 수 없는 建物이나 지붕은 용마루가 차마길이 보다 훨씬 긴 맞배지붕이다. 이러한 點으로 보

아 日本에서는 先史時代에 이미 原始的인 팔각지붕의 建物이 많았다는 것을 알수있고 앞에서 말한 堅穴住居 復元에서도 이 家屋文鏡의 建物 모양을 參考하여 그렇게 復元했던 것으로 보인다. 古墳時代에 들어서는 五世紀頃의 所謂 埴輪라고 불리는 象形土偶속에도 確實히 팔각지붕으로 보이는 建物模型이 나타난다.(圖三)

中國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살펴보려하나 여러가지 制約으로 充分한 資料를 얻지 못하고 있어 지금 볼 수 있는 資料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先史時代에는 대부분 堅穴住居였고, 殷代에 들어서는 一部 特殊한 目的을 가진 建物로서 地上建物이 나타나기도 하나 이들 建物은 모두 맛배지붕으로 推定되어 있다. ⑦ 또 戰國時代의 銅器類 表面에 흔히 建物을 나타낸 것이 있으나. 여기에도 지붕은 우진각으로 보이는 建物이었다. ⑧ 그리고 漢時代의 遺物인 畫像石에 나타난 建物像도 모두가 맛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으로 된 樓閣이나 殿閣등으로 팔각지붕은 전혀 없고 寡聞의 탓인지 魏晉時代에도 팔각지붕의 存在가 確認되지 않는다. 確實한 팔각지붕은 八世紀初頃에 세워진 唐나라의 興慶宮을 그린 石刻圖⑨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中國에서는 적어도 建築加工具들이 發達되고 架構手法이 發展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時期임에도 七世紀頃까지는 一般적으로는 팔각지붕이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勿論 이것이 넓은 中國 全體에 걸쳐서의 狀況인지 어떤지는 지금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그 當時까지의 中心的 王朝의 首都를 中心하거나 또는 그 權力者 周邊에서는 그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후에 있어서도 남아있는 遺構 또는 遺物을 通해서 볼 때 宋, 明, 淸으로 時代가 내려오면서도 中國의 大規模 木造建築의 지붕은 팔각지붕 보다 우진각지붕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도 事實이다.

古代 以後의 우리나라와 日本의 狀況은 어떠한가를.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팔각지붕으로는 統一新羅의 것으로

보이는 한 家形土器(圖四)에서 팔각지붕을 볼 수 있다. 이것은 一見 佛堂 建物인 것같이 보이는 建物模形인데 뚜렷한 팔각지붕이며 그 合閣部分 頂上에는 懸魚를 나타내는 듯한 裝飾이 있다. 또 統一新羅末期의 것으로 보이는 碑石의 螭首(蓋石)에 팔각지붕에 뚜렷한 懸魚를 裝飾한 遺物이 있다. 實存 建物로는 高麗中期에 建立된 것으로 보는 浮石寺 無量壽殿이 懸魚 없는 팔각지붕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 후 李朝初期부터 末期에 걸쳐서 重要な 法堂, 宮闕 城門 등 큰規模 또는 偉嚴이 要求되는 建物에 팔각지붕이 많이 採用되어 왔다.

日本의 경우에는 七世紀頃에 만드려진 것으로 보이는 法隆寺所藏의 家形佛龕인 玉虫厨子(圖五)가 용마루 끝에 鷗尾를 裝飾한 팔각지붕이며 法隆寺 金堂 中門 등이 역시 팔각지붕으로 그 후 中世에 내려오면서 宮闕, 法堂, 神殿, 住宅 등 여러 建物이 팔각지붕으로 되었다.

이렇게 볼 때 木造建築의 지붕 가운데 팔각지붕은 中國에서는 唐 以後에 一般化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統一新羅 以後에 나타난 것이며, 日本만은 先史時代부터 原始的인 팔각지붕이 있었고 또 이 原始的인 팔각지붕과 直接的으로는 無關한 것같이 생각되나 古代에서도 적지 않게 팔각지붕으로 된 建物이 있었다는 結論에 到達하며, 이는 中國 보다 앞서서 팔각지붕을 採擇했다는 矛盾的인 結果가 되었다.

IV

筆者는 別稿⑩에서 高句麗古墳壁畫속에 그려진 各種 建物圖에 대하여 「모두가 우진각지붕 또는 맛배지붕이었으나 팔각지붕으로 생각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 이 事實은 高句麗에서는 팔각지붕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中略)……高句麗의 文化가 大陸北方에서 導入된 것을 짐작하여 팔각지붕이 高句麗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팔각지붕이 大陸의 南方地域에서 開發된 것으로 高句麗에서는 아직 그 樣式이 導入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問題를 提起한 바 있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팔각지붕은 先史時代부터 日本에서는

있었던 것이고, 또 古代에 특히 中國大陸의 南方地域과 깊은 文化的 關係를 가졌던 百濟와 密接한 交流가 있었던 日本에 일찍 發達된 建築手法에 의한 팔작 지붕의 建物이 있었다는 것은 역시 百濟에도 일찍 팔작 지붕으로 發達된 技法의 建物이 있었다고 類推할 수 있는 充分한 根據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희미하나마 百濟의 山水文磚에도 비슷한 건물이 보인다. 특히 玉虫厨子が 百濟에서 日本으로 傳해진 可能性이 크며, 法隆寺 主要建物이 팔작 지붕으로 된 것은 이것을 證明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들 지붕의 發生過程과 形態에서 오는 機能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모임집 또는 원추형의 지붕은 가장 單順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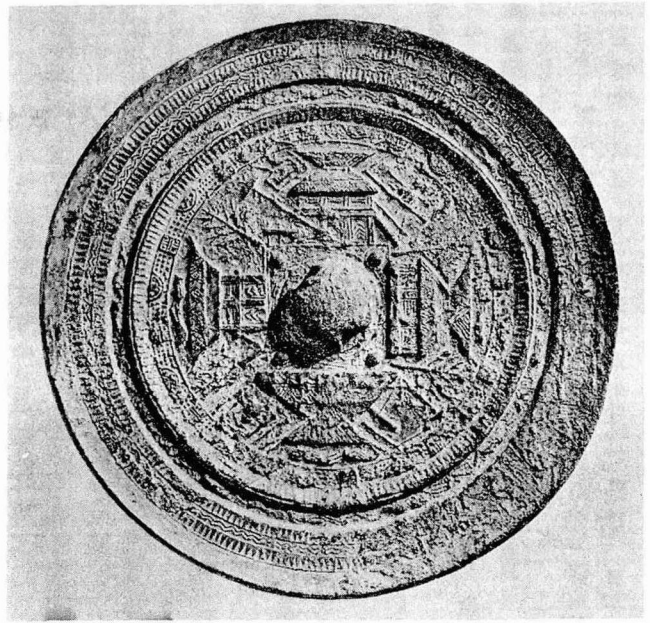


圖 5. 家 屋 文 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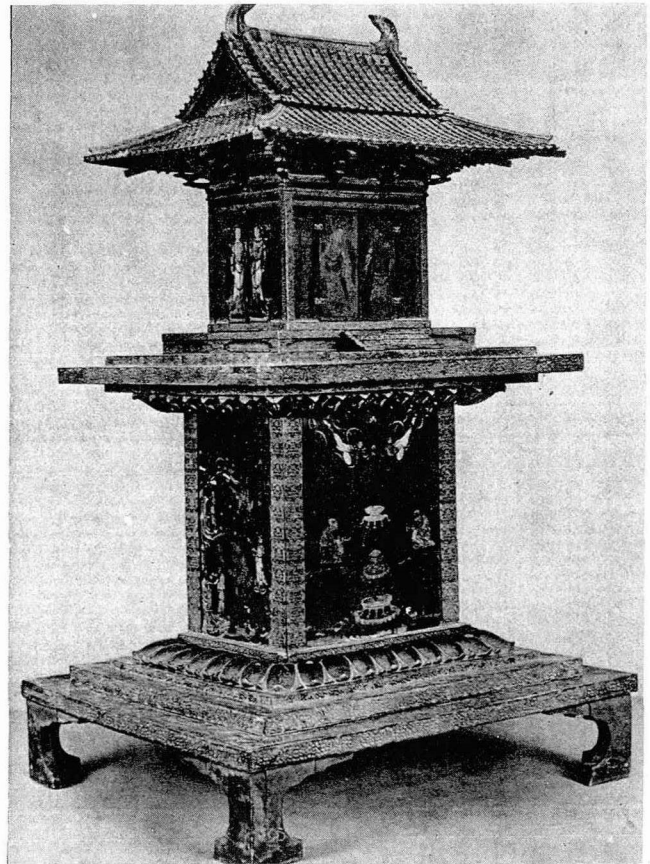


圖 6. 玉 虫 厨 子

고 어떤 平面을 立體的으로 覆蓋하는데 있어 直感的으로 導出될 수 있는 形態이며 原始時代 즉 建物의 發生과 同時에 發生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東北亞細亞地域뿐만 아니고 全世界의으로 木材로 지붕을 架構한 地域에서는 어디에서나 使用된 形態라고 믿어진다. 다만 이 지붕은 被覆되는 平面이 圓 또는 圓에 內接할 수 있는 單順平面 즉 四角、五角、八角 등의 平面의 경우 可能한 지붕形態라는 制約이 있다. 그리고 이 지붕은 매우 閉鎖的인 機能을 갖는 것으로 지붕 또는 他部分에 別途로 어떤 施設을 加하지 않고서는 採光 通風 등이 不利하다.

맞배 지붕 역시 建物 지붕으로서 가장 基本的이며 始源的인 形態로 架構와 活用に 合理的인 形態로서 世界的으로 普及된 것이다. 이 지붕

은 大部分의 建物平面이 正方形 또는 長方形이나 그의 復合形態이기 때문에 그러한 建物平面에 制約을 적게 받는 가장 活用度가 높은 지붕形態이다. 이 지붕의 機能은 合閣部를 開放하면 通風 採光에 有利하고 合閣部를 閉鎖하면 保溫的 閉鎖的인 지붕이 된다.

우진각지붕은 네모지붕의 發展形態로서 長方形 平面을 덮는데 쓰이며 맞배지붕보다는 좀 더 複雜한 架構로 된 發展된 形態로 넓은 스관을 덮을 수 있는 閉鎖的인 지붕이며 安定感이 많은 지붕이다.

팔각지붕은 架構上으로는 우진각지붕보다 더욱 複雜한 手法이 必要하며 形態는 맞배지붕 四圍에 傾斜된 지붕을 덧붙인 形態로서 맞배지붕의 機能과 우진각지붕의 機能을 折衷한 것이다. 즉 팔각지붕의 合閣部分을 開放하면 通風 採光의 效果가 많아지고 맞배지붕의 合閣을 開放한 경우보다 지붕으로서의 機能이 더욱 커지는 形態이다.

古代以後의 本格的인 木造建物 즉 發達된 架構手法에 의해 만들어진 建物에서는 맞배지붕이나 팔각지붕의 合閣部分은 閉鎖하는 것이 一般的이었으리라고 생각되며 原始時代의 경우에는 日本에서는 開放된 것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日本의 家屋文鏡에 보이는 맞배지붕의 용마루가 처마 길이나 보다는 길게 뻗어나와 合閣部가 外傾하였고 팔각지붕의 合閣部分이 역시 맞배지붕과 같이 용마루가 合閣 下端 보다 밖으로 뻗어나와 合閣部가 外傾하고 있는 것은 合閣部分을 開放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雨水가 降入하는 것을 막기 위한 處理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은 家形埵輪에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맞배지붕과 팔각지붕은 合閣部를 開放할 경우 通風이 잘되고 그러한 것이 日本에서 先史時代부터 많이 있었다는 것은 注意되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日本의 住居는 高溫多濕의 氣候의 條件에 의해 原來부터 耐暑的인 住居로 發展되어 왔다는 事實과도 直結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日本의 原始文化 속에는 多分히 南方的 海洋的인 要素가 包含되어 있다. 이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따라서 日本의 先史時代의

建物 지붕에서 우리나라나 中國中原에서 보지 못하는 形態로 開放的인 機能을 갖는 맞배지붕이나 팔각지붕이 있다는 것은 分明히 南方的 海洋的인 原始文化의 影響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그것은 지금도 南方地方의 原始民들의 住居에서 高床의 팔각지붕으로 된 住居를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또 百濟에서 先史時代에서는 分明치 않으나 古代부터 發達된 建築手法으로 된 建物에 팔각지붕으로 된 것이 存在했다면, 역시 中國의 南方地方에서 原始時代에 發生된 지붕形態를 發達된 建築手法으로 翻案한 팔각지붕이 導入된 것이며 그것은 아직 中國中原에서는 行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考察을 통하여 팔각지붕은 高溫多濕한 南方地方에서 合閣部가 開放된 形態로 原始時代부터 存在했던 것이며 그것이 그대로 日本에는 일찍 傳해졌고, 우리나라에는 先史時代에는 없었고, 古代 百濟에는 中國 南部地方과의 交流를 통해 팔각지붕의 木造建物이 存在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다시 日本으로 傳導된 것이며, 高句麗나 古新羅에서는 아직 팔각지붕으로 된 木造建物은 없었다. 統一新羅時代에는 百濟文化의 吸收와 唐과의 交流 등으로 合閣部가 閉鎖된 팔각지붕이 나타난 것이라고 結論지을 수 있다.

V

여기서 注意해야 할 점은 日本의 팔각지붕이 先史時代의 그것이 直接 發達變化해서 發達된 手法으로 된 玉虫厨子나 法隆寺 金堂 등에서와 같은 팔각지붕으로 移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關해서 筆者의 見解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先史時代의 日本의 팔각지붕은 그대로 繼續되어 中世까지도 住宅建物에서 持續되었을 것이고 現在에서도 地方 農村住宅에서는 그 退化된 痕跡을 보이고 있고, 玉虫厨子나 法隆寺 등의 지붕은 中國南部地方에서 原始的인 팔각지붕의 架構를 發達된 架構手法으로 翻案 完成시킨 것을 百濟를 통해서 日本으로

로 전해진 것이며, 決코 日本의 原始的 팔각지붕과 古代의 팔각지붕이 直接 連關關係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日本에서 先史時代의 팔각지붕과 古代의 팔각지붕을 連結시킨 過渡的 架構方法으로 된 建物이 確認되지 않았고, 또 日本의 住宅 또는 이와 關聯되는 建物과 發達된 手法의 建築과는 전혀 別個로 發展되어 나갔던 것이며, 發達된 手法의 建築技術이 佛敎文化와 아울러 거의 完成된 形態로 百濟에서 日本으로 傳해진 것이라는 點으로 充分히 說明되는 것이다.

從來까지 팔각지붕은 맞배지붕의 周圍에 退間을 내어서 成立된 것과 우진각지붕 短邊 上部에 通風孔을 낸 두가지 系統이 있었다고 하나 이에 대해서는 좀 더 檢討하여야 하겠다. 이에 따르면 마치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이 먼저 發生하여 그것이 變化하여 팔각지붕으로 發展된 것 같이 보고 있거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적어도 日本에서는 그리고 南方 海洋地方에서는 맞배지붕과 팔각지붕은 原始時代부터 거의 同時에 發生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맞배지붕과 팔각지붕이 各各 別途로 發生한 것이고 결코 맞배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이 變形 發達되어 나타난 지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팔각지붕은 그 形態로 南方地方에서 獨自的으로 發生하였던 것이다. 다만 이 原始的인 팔각지붕이 發達된 建築手法이 開發됨으로써 어떻게 그것에 適應하여 發達된 木造建物로서의 팔각지붕으로 定着하였는가 하는 問題가 남는 것이다. 이 問題의 解決法의 하나로 玉虫厨子の 지붕을 들어 맞배지붕 建物 周圍에 退間을 달고 그 위에 傾斜한 지붕을 붙여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方法만이 發達된 木造建物의 팔각지붕으로의 變化方法이라고 斷定하고 그것이 모든 發達된 木造建物의 팔각지붕의 始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오히려 이런 方法은 팔각지붕으로서는 特殊한 形成方法이었고 普遍的으로는 두개의 지붕形態의 結合이라는 狀態가 아니고 原始的인 팔각지붕에서 直接 發達된 建築手法에 의한 架構手法이 獨創的으로 中國南部地方에서 發生하여 그것이 百濟로 그리고 日本으로, 傳해졌으며 中國內에서도 中央王朝의 範圍의 變化에

따라 南部에서 七~八世紀頃에 中原에 傳해졌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證明은 아직 資料가 不足하여 充分히 說明할 수 없으나 맞배 지붕에서 變化했다는 證據인 鍬葺란 지붕樣式의 遺物 또는 遺構는 古代에서는 玉虫厨子와 不確實하나 山水文磚의 建物 以外에는 그 例가 없고 같은 樣式의 建物인 法隆寺 金堂도 보통의 팔각지붕이며 中國의 唐의 것이 역시 一般的인 팔각지붕이었다는 점 만으로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結論的으로 發達된 建築手法의 팔각지붕은 中國南部地方에서 原始的인 팔각지붕에서 시작하여 그 곳에서 發達된 手法의 架構로 翻案되어 그것이 中國中原으로, 그리고 한 쪽에서는 百濟를 通하여 日本에 傳해진 것이며 鍬葺의 手法은 特殊한 造形方法이지 결코 發達된 手法의 팔각지붕의 始源形態가 아니라는 것이다.

(註)

- ① 拙著 「韓國堅穴住居址考」(一)〔考古學〕第一輯 P. 三四一九六八 서울
- ② 拙著 「韓國堅穴住居址考」(二)〔考古學〕第三輯 P. 三一九七四 서울
- ③ 拙著 上同 P. 二
- ④ 金載元, 尹武炳 「韓國支石墓研究」 國立博物館 一九六九
- ⑤ 日本의 登呂遺蹟, 平出遺蹟 등.
- ⑥ 家屋文鏡.. 日本, 奈良樂 寶塚古墳에서 發見된 것임
- ⑦ 日本建築學會編 「新訂建築學大系四—II」 『東洋建築史』 P. 二五二
- ⑧ 上掲書 P. 二五七~二九五
- ⑨ // P. 三三二
- ⑩ 拙著 「高句麗壁畫古墳에서 보는 木造建物」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刊 P. 八九三一九六四年 서울
- ⑪ 伊藤延男 「古建築의 見方」 P. 二五四, 一九六二 日本 東京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연구소장)